

구치부에서 사용되는 각종 post 의 임상증례

단국대학교 보철학교실 이 정 선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의 수복술식은 오랫동안 수복치과 영역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충치, 수복물의 파절, 외상, 근관형성등으로 인해서 수복물의 유지에 이용되야 할 치관부가 전부, 혹은 대부분이 소실되었을때, 유지를 위해서 post and core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post 제작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응력분산과 유지력이다. 균일한 응력 분산과 최대의 유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post 길이가 3-5mm의 apical seal을 해치지 않고 잔존 치질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관의 길이가 같거나 치근 길이의 1/2이상이 되어야 하며 post wall은 되도록 평행하게 하여 최대의 유지력과 응력분산을 얻는 것이 좋다.

구치부의 근관은 divergent 하기 때문에 2-3개의 post를 평행하게 만든 one piece로는 위험하므로 separate post가 이런 경우에 사용된다. 제작시 중요한 점은 integral Dowel-core를 만든후에 accessory Dowel이 들어갈 channel을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제작시간도 오래 걸리며 구강내의 시적과정도 난이하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preparation된 2개의 근관중의 1개의 근관속에 burnout post를 삽입하고, 나머지 근관속에 anchorage post를 분리재 도포후 삽입하여 wax up후 casting 하는 modify된 dowel and core술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 술식은 제작과정과 시적과정이 용이하여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술식으로 사료된다.